

“빛나는 모험 떠나요”...함평 ‘나비대축제’ 24일 개막

내달 5일까지 행사·공연 등 풍성

핵심 콘텐츠 ‘퍼레이드’ 전면 개편

밴드 부활 등 대중문화 공연 다채

함평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핵심 콘텐츠인 퍼레이드를 개편하고 다채로운 대중 공연 라인업을 확정하는 등 막바지 행사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5월5일까지 개최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주력 프로그램인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가 매일 축제장 일원에서 운영된다.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는 매년 화려한 연출과 독창적인 구성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나비대축제의 상징 콘텐츠다.

올해 퍼레이드는 문복주 송원대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연출 완성도를 대폭 높였다.

퍼레이드카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연기자 규모를 확대했으며, 퍼레이드 전용 주제곡을 새롭게 제작하는 등 시각과 청각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나비와 황박이의 빛나는 모험’을 주제로 구성된 행진은 24일 개막식 주제 공연을 시작으로 5월5일까지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며, 나비를 테마로 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몰입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축제장 중앙광장 일원에서는 나비 날리기 행사와 어린이 동반 포토타임이 상시 운영되며, 함평의 상징인 나비와 황금박쥐를 접목한 스토리형 거리 공연도 병행해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일자별 대중문화 공연 라인업도 촘촘하게 짜였다. 24일 개막식 축하 공연에 나서는 가수 김용빈을 시작으로, 25일과 26일, 5월1일에 연달아 열리는 ‘나비콘서트 인 데이(in day)’에는 가수 김수찬과 밴드 부활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5월2일 전국 나비댄스 경연대회에는 가수 비오가, 어린이날인 5일 폐막 행사에는 가수 안성훈이 각각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퍼레이드 차량과 연출진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시청각적 몰입도를 높였다”며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목포상의, 재직자 AI 교육·구명조끼 기증

목포상공회의소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재직자 AI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실무(브랜딩마케팅)’ 과정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세번째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재직자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경동상사 등 관내 13개 기업 재직자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챗GPT를 활용한 홍보 배너, 포스터,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마케팅 기법을 집중적으로 실습했다.

이와 함께 목포상의는 같은날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어선 및 해상 작업 현장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30벌을 기증했다.

전달식에는 정현택 회장과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과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현택 회장은 “지역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최첨단 AI 교육을 지속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현장의 안전 지원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상생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영암군 ‘어르신마켓’ 판로 개척·자립 기반 특독

왕인축제장서 350만원 매출

협업 작업장 16곳 확대·운영

영암군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운영 중인 협업작업장 생산품 마켓이 지역 축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판로 확대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영암왕인문화축제 현장에서 관내 7개 경로당이 참여한 ‘어르신마켓’ 판매 부스를 운영해 9일간 총 3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특별 부스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어르신들의 고충을 수렴해 기획했다.

어르신들은 작업장에서 손수 제작한 친환경 수세미, 편백 베개, 다육식물, 손뜨개 인형 등 다채로운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직접 대면 판매를 주도했다.

제품 생산은 물론 유통과 판매에 이르는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나서며, 일부 인기 품목은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



되는 실적을 냈다.

영암군은 이번 축제 판매 성과를 동력 삼아 올해 경로당 협업작업장을 총 16개소까지 전면 확대 운영해 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 창출 인프라를 다지며, 지역 축제와 직거래 장터 등 다각적인 유통 채널도 지속해서

발굴한다.

전희자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현장 마켓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숨은 재능과 생산품의 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체계적인 판로 개척과 자립을 돕기 위한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영광군 “감성 힐링 쉼 투어’ 참여하세요”

매주 토요일...3개 코스·문화해설사 동행

영광군은 20일 “오는 10월31일까지(7-8월 제외) 매주 토요일 광주 유스퀘어와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투어 프로그램 ‘2026년 영광 쉼(休)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는 이번 투어는 지난 2023년 첫 도입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영광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천년의 영광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보강해 총 3개 코스로 차별화했으며, 백수해안도로와 숲에서 꽃동산 등을 경유하는 A·B·C코스와 불갑사와 물무산 행복

숲 황토길, 대마 서로마을 체험을 연계한 C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용 요금은 버스 탑승료와 중식, 간식비를 포함해 1인당 3만원이며, 만 5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나라고속(062-672-9000) 전화 예약이나 영광군 누리집(문화관광)을 통해 투어 전날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구석구석 누비는 쉼 투어가 도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신안군, 섬 지역 청소년 맞춤형 성장 지원

찾아가는 진로체험 등 운영 합의

신안군이 인구 감소로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밀착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 가족센터에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기관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공동 사업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체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청소년 주도형 ‘컬러풀 청소년 기획단’, 사회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아카데미’, 섬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체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지역 청소년 교류 활동, 진로자립 캠프, 전용 활동 거점인 ‘자유공간’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해 지역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청소년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원동력”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섬 지역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든든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해남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두륜산 녹차밭 일원에서 ‘녹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녹차체험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차잎을 따고 있는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 초의선사 발자취 ‘전통 녹차 체험’ 운영

27일부터 차잎 채취·전통 덕음 실습

해남군이 우리나라 차(茶) 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선사의 발자취가 서린 두륜산 자락에서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전통 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두륜산 도립공원 녹차밭 일원

에서 ‘녹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두륜미로파크에서 바구니를 받아 직접 차잎을 따고 전통 방식의 덕음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다.

군은 차나무의 생육 보호와 안전한 체증을 위해 회차당 잎 따기(채엽)는 20명, 덕음은 10명으로 참여 인원을 제한한다. 참가비는 1인당 5천

원이며, 체험 모습을 플로라이드 사진으로 남겨주는 특별 이벤트도 병행한다.

약 2만8천㎡ 면적에 14만주의 차나무가 친한 경으로 재배되는 두륜산 녹차밭은 매년 봄이면 가족 단위 관광객과 다인(茶人)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사전 예약 및 접수는 두륜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두륜산의 맑은 자연 속에서 직접 차잎을 덕으며 우리 고유의 차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깊이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진도군, 지산면 주민 C형 간염 검사

진도군은 20일 “지산면 주민 1천572명을 대상으로 시형(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 결과 119명이 항체 양성자로 확인됐으며, 항체 양성자는 감염 이력이 있거나 현재 감

염 상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진도군 보건소는 항체 양성자를 대상으로 C형 간염 리보핵산(RNA) 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한 후, 감염이 확인되면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시형(C형) 간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 만큼, 항체 양성 통보를 받은 주민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역 안에 있는 잠재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 연계하는 선제적 대응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검사와 홍보, 교육을 통해 C형 간염 없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원기자